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발톱 세운 '호랑이 군단'

## 한화상대 8... 9... 10연승 간다

### 프로야구 전망대

발톱 세운 '호랑이 군단'이 기분 좋은 휴식기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홈런들에게 5승을 안긴 KIA 타이거즈가 18일 한화 이글스의 안방으로 가서 8연승에 도전한다. 주말에는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85 동갑내기 거포 나지완·김주형을 앞세운 KIA는 지난주 8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NC·SK를 상대로 5전 전승을 거뒀다. 김주찬은 3번 자리에서 테이블 세터와 클린업 트리오의 역할까지 겸하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도 불이 붙었다.

7연승과 함께 6위까지 내려갔던 순위를 4위로 되돌려 놓았고 1위 삼성과의 격차도 4게임 차로 줄였다. 3위 LG와의 격차는 1게임 차로 좁혀졌다.

KIA는 상승세를 이어 한화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지난 16일 나지완·김주형·이범호의 홈런 3방으로 김광현과 윤희상을 내세운 SK를 상대로 7연승에 성공하면서 선수단 분위기는 뜨겁다.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앞서 있다. 올 시즌 전적은 5승1패. 앞선 원정에서도 싸늘이 3연승을 거두며 2012년 5월9일 이후 대전 구장에서 11연승을 달리고 있다. KIA가 주말 휴식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호재다.

### 주말 휴식기에 총력전 예고

### 소사 완벽투 다시한번 기대

### 연승행진 관건은 불펜 정상화

KIA는 주말 일정이 없는 만큼 한화와의 경기에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8연승을 위해 외국인 투수 소사가 앞장선다. 소사는 18일 이브랜드를 상대로 8승 4타점에 나선다.

소사는 앞선 NC와의 경기에서 8이닝 6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하며 시즌 7승에 성공했다. 이날 KIA는 어렵게 이닝을 꾸려나가던 소사가 8이닝을 책임져 주면서 NC 아담의 호투 속에도 2-1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팬층이 적었지만 선동열 감독은 "빠른 직구를 바탕으로 한 파워 피칭이 아쉬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사가 강속구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같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불펜 정상화"는 이번 한화전을 앞둔 KIA의 또 다른 숙제다.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오기도 불펜의 난조로 경기 후반 어려운 대결을 벌이는 게 KIA의 최근 패턴이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1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54	33	19	2	0.635	0.0
2 넥센	56	32	23	1	0.582	2.5
3 LG	58	33	25	0	0.569	3.0
4 KIA	57	31	25	1	0.554	4.0
5 롯데	57	30	25	2	0.545	4.5
6 두산	56	27	28	1	0.491	7.5
7 SK	54	23	30	1	0.434	10.5
8 NC	56	20	33	3	0.377	13.5
9 한화	56	17	38	1	0.309	17.5

새로운 '믿을 맨'으로 활약을 해주던 신승현이 기복을 보이고 있고, 송은범의 난타가 계속되고 있다. 마무리 앤서니는 다섯 경기 연속 등판을 하며 세 번째 불펜 세이버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펜진의 난조 속에 선 감독의 투수 교체 여파도 계속되면서 7연승 곳곳에 위기가 있었다.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위한 '불펜 정상화'가 이번 한화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3연전에서는 토타라 이용규와 4번 타자 나지완의 기록 도전도 이뤄진다. 이용규는 앞으로 3경기에서 더 출전하면 통산 100번째로 1000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된다.

7연승 기간 영양가 만점의 홈런포 4개를 터트린 나지완은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통산 45번째)에 1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강희호 유종의 미 거둔다

## 오늘밤 9시 울산서 이란상대 월드컵 최종예선전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동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이란을 제물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과 '명예회복'의 두 마리 토끼사냥에 나선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후 9시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이란과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8차전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은 최종예선 7경기에서 승점 14점(4승2무1패)을 쌓아 A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3위 우즈베키스탄과는 승점 차가 3까지 벌어졌고, 2위 이란(4승1무2패)은 한국보다 승점 1 뒤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본선행 티켓을 차지한다.

만에 하나 이란에 지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이 카타르에 대량 득점에 골 득실에서 한국을 앞서지 않는 한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현재 한국의 골 득실은 +7로 우즈베키스탄의 +1과 격차가 크다.

반면 이란은 반드시 승리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과 비기고 우즈베키스탄이 카타르에 4점차 이상 대승을 거둔다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3위로 떨어진다.

'경우의 수'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지만 최강희호(號)는 "이란을 상대로 3~4골 차로 이기겠다"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란을 홈에서 잠재워 그동안 이어진 경기력 논란을 끝내고 당당하게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다.

최 감독은 이란전에 들고 나갈 '필승 전술'을 놓고 심사 속고했다.

14일에는 장현수(FC도쿄)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동원(아우쿠스부르크)을 윙백으로 내세운 4-1-4-1 전술을 점검했다. 그러나 15일 울산으로 이동해 치른 훈련에서는 중원의 숫자를 한 명 줄이고 김신욱(울산)-이동국(전북) 조합을 앞세운 4-4-2 전술을 가동했다. 하지만 미니게임의 조합을 고려하면 김신욱과 이동국을 최전방 투톱으로 놓고 좌우에 손흥민과 이청용을 배치하는 4-4-2 전술이 유력해 보인다.

중원은 이명주(포항)-장현수가 맡고 포백은 왼쪽부터 김지우(서울)-김영권(광저우)-김기희(알 사일라) 또는 정인환(전북)-김광수(가시와)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는 이란은 4-0 대승을 거둔 레반전과 같이 4-2-3-1 전술을 앞세워 한국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네루남과 안드라니크 테이무리안(트락토르 사지)이 수



비형 미드필더 조합을 이루고, 모스타파 자바리(에스테그랄)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는 하리진은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최강희 감독은 이란전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기 초반 흐름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강한 정신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감독과의 문답.  
 -비공개 훈련까지 하며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

▲ 3주째 훈련하고 있다.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늘어질 수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몸 상태나 선수들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 전술 소화력과 팀 밸런스도 좋다. 과거 이란전을 보면 축구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 정신적으로도 집중을 많이 해야할 것으로 본다.

-공격적 조합은.

▲어느 정도는 생각이 정리된 상태. 모든 선수들이 내일 출전을 앞두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공격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비나 미드필드에서 새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조합을 잘 이루고 경기에서 가진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소감을 말해달라.

▲시한부 감독을 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대표팀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을 견어내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연합뉴스

## 100kg 거구 김주형,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2초의 질주

### 톡&Talk

# 팬들의 마음을 녹였다



최희섭의 끝내기 3루타가 나온 13일 NC전은 연승의 고비였다. 5연승에 아웃카운트 3개를 남겨둔 9회 7-2의 리드. 느긋하던 벤치 분위기는 신승현의 만루 허용으로 다급해졌다. 마무리 앤서니가 두 명의 주자를 들여보내는 대신 어렵게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7-7, 윤석민의 선발 첫승도 물거품이 됐다.

9회 4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LG에 연장전 패배를 당했던 악몽이 떠오르던 순간 믿었던 신종길과 김주찬이 허무하게 돌아왔다.

마지막 기회를 남겨놓고 대수비로 들어가 첫 타석에 선 김주형이 우익수 앞에 푹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희섭의 힘찬 스윙과 함께 김주형이 뛰기 시작했다. 공이 우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동안 김주형이 2루를 찍고, 3루 베이스를 지났다.

통산 도루가 2개에 불과한 김주형은 팀에서도 소문난 느림보. 100kg 거구의 선수는 홈 베이스를 향해 몸까지 날랐다. 타자 주자 최희섭도 간절하게 뒤를 따르느라 2루를 지나 3루까지 밟은 상황, 흔치 않은 끝내기 3루타가 만들어졌다.

최희섭은 커다란 후배가 열심히 달려 몸을 날렸기 때문에 결승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면서 "감동이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끝내기의 흥겨움이 지나가고 최희섭의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도 김주형은 탁아한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2004년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동성고 출신의 고졸 거포 김주형은 팬들에게 '애증의 이름'이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잠깐의 빛과 긴 어둠의 반복. 올 시즌도 어둠이었다. 미국 애리조나 캠프가 끝난 무렵 김주형은 먼저 짐을 꾸렸다. 일본 오키나와가 아니라 중국 징중이 김주형의 행선지였다. 1군 캠프 탈락이었다. 20여 시간의 이동 끝에 눈물의 귀국을 한 김주형은 다시 3번의 비행기를 갈아탄 뒤에야 2군 캠프에 합류했다. 2군 캠프가 끝난 뒤에는 잠시 오키나와를 찾으면서 한·중·일·미를 도는 4개국 캠프를 치렀다.

사실 캠프 탈락자는 김주형이 아니었다. 선동열 감독이 꼭 필요한 선수라며 김주형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한대화 2군 총괄코치의 특별 관심대상으로 어렵게 중국 캠프를 치렀다. 몸보다 마음을 다독이는 게 더 힘든 순간이었다.

최희섭과 나지완의 활약속에 설 자리가 없어보였지만 뜻밖이 찾아온 기회. 1군 첫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날렸지만 6경기 연속 안타 이후 5경기에서 침묵이 이어졌다. '역시나'하는 얘기가 나올 때쯤 김주형은 '한대화입니다'는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낯선 번호의 부재중 전화. 알고 보니 한 총괄 코치의 번호였다. "중심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곁집으며 다시 타석에 섰다.

7연승 기간 김주형은 0.458의 타율로 7타점을 만들었다. SK와의 경기에서는 이를 연속 경기장을 넘기는 장의 홈런을 터트리며 괴력을 발휘했다. 어깨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몸으로 공을 막아내고 간절하게 12초의 질주도 했다. '애증의 신'으로 보던 팬들의 마음도 녹였다.

"즐거이는 마음이다.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무엇이 김주형을 바꾸게 했는지는 모른다. 어떻게 김주형의 2013시즌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 없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포 김주형의 인생에 그렇게 긴 12초가 있었을까.

최희섭의 방망이가 돌아간 뒤 1루 주자 김주형이 홈까지 파고드는데 걸린 시간은 12초였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흘러가던 12초의 시간. 거구의 슬라이딩 이후 주심의 양팔이 올라가자 비로소 벤치에 있던 KIA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다.

## '잉글랜드의 희망' 로즈 생애 첫 메이저 왕관

### 잉글랜드 선수로는 43년만에 US오픈 우승... 미켈슨 여섯번째 준우승

'잉글랜드의 희망' 저스틴 로즈(33)가 제 113회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로즈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아드모어의 메리언 골프장(파70·6996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5개를 맞바꿔 타수를 지켰다.

합계 1오버와 281타를 적어낸 로즈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필 미켈슨(미국·3오버와 283타)을 2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약 16억2000만원).미켈슨은 US오픈에서 무려 여섯차례나 준우

승하는 징크스를 넘겼다.

로즈는 US오픈에서 1970년 토니 재클린 이후 43년만에 우승한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가 됐다. 또 4대 메이저대회 중에서는 1996년 마스터스에서 니 팔도가 우승한 이후 17년만이다. UC버클리 2학년에 재학중인 재미동포 마이클 김(20)은 10오버와 290타로 공동 17위에 올라 아마추어 선수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인 재미동포 존 허(23)도 마이클 김과 함께 공동 17위에 올랐다.

통산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렸던



타이거 우즈(미국)는 13오버와 293타를 적어내고 공동 32위로 대회를 마쳤다. 1996년 프로 전향 이후 US오픈에서 나온 최악의 성적(언더파 기준)이다. 최경주(43·SK텔레콤)는 공동 32위(13오버와 293타), 김비호(23·넥센)는 공동 45위(15오버와 295타)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41위(14오버와 294타)에 머물렀다.

로즈는 메이저 우승을 보지 못하고 2002년 백혈병으로 숨진 아버지 켄 로즈에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가 생각이나 하늘을 쳐다봤다"며 감격했다.

/연합뉴스